

# 2013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3.1.31(목) 15:00~16:30

## 주요 발언 내용

### ▲ 보도 방식 개선 필요

- 빠른 보도인지 아니면 특별한 뉴스를 다루는 것인지 뉴스Y의 경쟁력 요소가 무엇인가 고민해야. 뉴스Y만의 차별화 전략 재점검해야(홍승용 위원)
- 김용준 총리후보 사퇴 소식을 속보 자막처리만 해. 정규 방송을 미뤄서라도 즉시 다뤘어야(김정연 위원)
- 국제뉴스를 지금의 틀대로 계속 이어갈지 고민해봐야. 선진국 보도는 양 많고 긍정적, 후진국 보도는 양 적고 부정적임. 알제리 테러 등에 대한 분석 찾기 어려워. 사건 중심에서 해석 분석 중심으로 변화해야(김경모 위원)
- 엠블런스 시스템을 갖추고 특별한 사안 발생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 갖춰야(홍승용 위원)
- 스타앵커가 있어야. 광승준 위원 미래기획위원장 추천(홍승용 위원)
- 주말 오후 뉴스가 상당히 느슨하고 뉴스 밸류가 떨어져(박영상 위원장)
- 기상캐스터들 “~했는데요” 표현 자제해야. 단문형 표현이 원칙(박영상 위원장)
-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보도에서 판결 내용은 법률 내용 붙여 쉽게 보도해야. 또 공정한 분석 위해 법조인들 의견 들어야(한박무, 임영호 위원)
- 한파 특보 날씨 예보에서 에너지 절약 등 생활정보도 같이 나왔으면(이석구 위원)
- ‘철퇴를 맞았다’와 같은 과격하고 선정적인 표현 자제해야(이석구 위원)
- 스페셜올림픽 보도가 심야뉴스에만 있고 거의 없어 아쉬웠음(이석구 위원)
- 삼성전자 불산 유출 사고 관련해서 삼성 홍보팀장 기자회견 내용은 심층 분석했어야. 또 구미 사고와 엮어 불산 관련 얘기를 다뤘어야(차경애 위원)
- 조성민 자살 뉴스는 청소년 고려해 사실 보도 외에는 자제해야(차경애 위원)
- 라이브 중계를 끊을 때 앵커가 설명해 주는 절도 있는 중계 필요(한박무 위원)
- 국민적인 전기절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(임상혁 위원)

### ▲ 촬영기법, 진행방식 등 개선해야

- 시그널 음악 및 음향, 배경 음악 요란하고 시끄러워. 데시벨 차이가 너무 나서 순간 깜짝 놀랄 때 있어(김경모 위원)
- 스튜디오가 너무 커서 보기 거북해. 카메라가 사람 얼굴이 아닌 배경 위주로 찍고 있어. 출연자 집중 조명해야(홍승용, 한박무 위원)
- 앵커 오래 서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. 개선해야(홍승용 위원)
- 여자 앵커가 말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 보는 내내 불편해. 여자 3, 남자 7

정도 멘트 배분해야(홍승용 위원)

- 뉴스 배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 중요해. 현재 서울의 흐린 날씨를 그 대로 보여주고 계절에도 둔감해 변화 필요(홍승용 위원)
- 기상캐스터의 복장이 현재 날씨와 맞지 않아 개선 필요(임상혁 위원)
- 스포츠와이드 메인화면 배경에서 상단 전광판 조명 이미지 너무 밝아. 밝기를 약하게 하거나 다른 이미지로 대체해야(최종준 위원)

#### ▲ 인수위 조직개편안 심층 보도 필요해

-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돼 있는 것은 이유가 명확치 않고 심각한 위험이 있어. 심층 보도 필요(이상목 위원)
- 교육부와 지경부 업무 다툼, 복지 부문의 컨트롤타워 필요성, 식약청과 식품안전부, 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 등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(이상목 위원)
- 언론학계에서는 MB정권에서 실패한 조직 개편 중 하나로 방통위 뽑아. 내적 충돌, 집행 행정기관 혼동 등 문제 집중해서 다뤄야(김경모 위원)

#### ▲ 화면구성 및 자막처리 개선해야

- 전체적인 화면 구성 개선해야. '연합뉴스TV' 노출 여부, 시간 중복 노출 등 필요한 지 고민해야. 하단 로고 돌아가는 것도 혼란스러움(한박무, 김정연 위원)
- 연합뉴스 내용 받은 단순 자막 처리는 개선해야. 전문적인 자막 편집 훈련 필요. 글줄기를 잘 뽑고, 제목 잘 배열해야(김경모 위원)
- (흐르는 자막) SBS 등은 앞에 주제별로 정치, 경제, 나로호 등 붙어 흐르는 와중에도 큰 밑그림 그려짐. 뉴스Y는 질서 없어(김경모, 임상혁, 최종준 위원)
- 자막처리는 보도 내용하고 일치해야. 지나간 부분인데도 자막이 계속 남아 있어.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한 사람이 감독해야(한박무 위원)
- 기자가 리포트를 할 때 중요한 자막 내용과 기자 이름이 동시에 나와. 기 자 이름은 나중에 써도 돼. 중요한 자막 처리에만 집중해야(한박무 위원)
- 자막 띠가 너무 커서 화면 가려 불편해. 조정 필요(한박무 위원)
- 나로호 발사에서 경과 시간 보여주는 글씨가 작아 보기 불편해(차경애 위원)
- 수화 방송 고민했으면. 시각 장애인 고려해 해설 방송도 해야(이석구 위원)
- 자막에 주요 경제지표를 표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(임상혁 위원)
- 그래픽 크기가 실제 대비 숫자와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(임상혁 위원)
- 속보 자막 내보낼시 화면과 자막 불일치로 혼선 발생. '속보'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다른 방안 고려해야(최종준 위원)

#### ▲ 프로그램 목적, 흥미 요소 등 고민해야

- '북한은 오늘'은 내용이 매우 심심해. 포맷을 바꾸는 것이 어떤지(박영상 위원장)
- 'Y초대석'도 재미없어. 섭외를 잘하면 재미있을 것(박영상 위원장)

- 나로호 보도에서 이소연, 고산 등 초청했어야. 스타뉴스 필요(홍승용 위원)
- 시청자토론도 분기에 한번은 방송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봐(홍승용 위원)

#### ▲ 긍정적 평가

- 오바마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자세히 설명은 굉장히 좋은 시사점(차경애 위원)
- 여성 최고 기업가의 감성경영 관련 보도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(차경애 위원)
- 1월 31일 보도한 '역사 속 날씨 이야기'도 인상 깊었음(차경애 위원)
- 도표 등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면. 택시 안심서비스 카드 사용 관련 보도에서 기자의 직접 시승은 바람직한 사례(임영호 위원)
- 뉴스Y는 나로호 보도 관련해 내용을 너무 잘 뽑고 있어. 특히 출연자 중 인하대 노태성 교수가 잘해. 출연자 엄선해야(홍승용 위원)
- '출근길 인터뷰', '고성국의 담담타타' 등 간판 프로그램으로 뚜렷한 뉴스Y의 색을 찾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해(최종준 위원)

#### ▲ 기타

- KTX 뉴스Y 방영에 대해 고객들 반응 체크해야. 다양화한 콘텐츠 개발 필요. 기차 역사 대형 스크린 등에 뉴스Y 방영해야(김정연 위원)
-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중 웹 접근법 지침이 있어. 뉴스Y 홈페이지도 시각장애인접근 지침 마련해야(이석구 위원)
- 시청자게시판 문의에 대한 답글 비율이 높지 않아 개선 필요(임상혁 위원)
-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필요(최종준 위원)
- 토론 프로그램 편성 필요(최종준 위원)